

‘지역소멸 고위험지역’ 고창의 미래생존 전략 고민

고창군 주최 · 한국식생학회 등 주관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군출입기자단과 한국식생학회가 주관하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 정책포럼’이 지난 3일 오후 고창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 지역의 미래생존 전략을 찾고 청년이 찾는 고창, 지속가능한 기업 유치 방안 등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2월 기준으로 한국의 소멸위험지역은 106개에 달한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려 46.9%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고창군도 고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산 들 강 바다 갯벌을 터전 삼아 살아 온 고창이 50년 뒤엔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포럼의 첫 발제를 맡은 최예슬 박사(국토연구원)는 ‘지역인구 감소 실태와 대응

방안’을 통해 “고창군의 최근 3년간 청년층 순이동은 -3310명에 달하고, 최근 3년간 전출자 중 청년층 비중은 37%로 전북 군단위 중에선 가장 높다”며 “청년 인구 유출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주요 정책과제로 ▲교통·물류 기반 확충 ▲지역향토산업 육성 지원 등 지역활력 증진사업 우선 실시 ▲공공기관 및 기업체 이전 지원 및 세제·보험료 혜택 등을 제안했다.

심재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구 감소 시대, 고창군 경제 발전 전략’ 발제에서 고창군에 관심을 갖는 ‘관계인구’ 확대와 활용정책을 이야기했다. 심 박사는 “재택근무 확산과 ‘4도3촌’(4일은 도시에서 3일은 시골에서 생활한다는 뜻의 줄임말) 생활 등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역 활력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일 씬, 삶이 융합하는 혁신적 공간육성 ▲전원형 지식창업센터 조성 ▲복분자·수박 등 특화작물의 신규 수요 창출 등이 제안됐다.

배진원 박사(산업연구원)는 ‘인구감소시대, 지역산업 여건변화와 기업투자’ 발표에서 “고창군은 농림어업이 특화돼 이 부분의 기업유치나 6차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기업의 투자유치가 지역의 산업기반 조성과 확충→기업투자→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지역주도의 보조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청 정길환 상생경제과장은 “고창군 기업유치 현황과 향후발제”를 통해



**교통·물류기반 확충
향토산업 육성 지원 등
지역활력 증진 우선 실시
관계인구 확대·활용
전원형 지식창업센터 조성
지역주도 보조금 등 제시돼**



“민선 7기 동안 고창군은 11개 기업을 유치해 2,430여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며 “앞으로도 환경을 보존하고 군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선 이양재 명예교수(원광대)를 좌장으로 전북연구원 김동영, 김수은, 서환석 박사와 이정현 조직위원장(환경운동연합)이 각각 인구학적, 산업적, 농업적, 환경적 시각으로 본 지역의 인구소멸 대응방안을 이야기 했다.

일반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눈에 띄

었다. 군민들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동우팜투테이블 입주 진행상황, 배추나 무 등 1차 산업을 뛰어넘는 김치 등 농식품 가공산업의 육성방안, 매일유업 상하유우 공장의 사례를 통해 본 기업유치 환경규제 해소방안 등을 질문했다.

이날 포럼은 밀도 높은 발제와 토론으로 예정된 시각을 훨씬 넘긴 4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늦은 시간에도 고창군수를 비롯해 많은 군민들이 자리를 지키며 ‘사랑과 돈이 모이는 고창,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속 기업유치’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양재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포럼은 지역 출입기자단이 군민들과 한마음이 돼 주관해 더 의미가 컸다”며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을 고창의 것으로 잘 담아내 지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고창군 유튜브 공식 계정(한반도첫수도고창)으로도 생중계 됐으며, 더 많은 군민들이 포럼의 주요내용을 찾아 볼 수 있도록 업로드 해놓을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